

[현대 기록학의 이론과 사상 - 2017년 5월 5일 단톡방 보강 수업 내용]

- 2017년 5월 5일 오후 9:05, 노명환 교수님 : 오늘 잘 지냈어요.
- 2017년 5월 5일 오후 9:05, 노명환 교수님 : 글씨 크기를 조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 2017년 5월 5일 오후 9:06, 노명환 교수님 : 참석자들 네로 답 부탁드립니다.
- 2017년 5월 5일 오후 9:06, 정남혁 : 네
- 2017년 5월 5일 오후 9:06, 회원님 : 네
- 2017년 5월 5일 오후 9:06, 권현진 : 네
- 2017년 5월 5일 오후 9:06, 안희선 : 네
- 2017년 5월 5일 오후 9:06, 염지수 : 네~
- 2017년 5월 5일 오후 9:06, sunlight_YH : 네
- 2017년 5월 5일 오후 9:06, 송명배 선생님 : 네
- 2017년 5월 5일 오후 9:07, 이은영 : 교수님 전 지금 자녀랑 외부에 있어서 계속 참석은 힘들듯 하여 글 남깁니다
- 2017년 5월 5일 오후 9:07, 노명환 교수님 : 수업 카페에서 과제물 읽고 준비를 했지요.
- 2017년 5월 5일 오후 9:07, 권현진 : 네~!
- 2017년 5월 5일 오후 9:07, 노명환 교수님 : 과제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별로 많지 않음.
- 2017년 5월 5일 오후 9:08, 노명환 교수님 : 오늘은 어린이 날이라 특별한데, 휴강이 많으니 그래도 공부를 좀 하기로 해요.
- 2017년 5월 5일 오후 9:09, 노명환 교수님 : 이은영선생, 오늘은 수업빠지고 어린이와 함께 하는 것 정당합니다.
- 2017년 5월 5일 오후 9:09, 소현 : 네~
- 2017년 5월 5일 오후 9:09, 노명환 교수님 : 상징의 모든 것 15페이지 보면 보면
- 2017년 5월 5일 오후 9:09, 노명환 교수님 : 용과 원형이 있습니다.
- 2017년 5월 5일 오후 9:09, 최윤하 : 네
- 2017년 5월 5일 오후 9:10, 노명환 교수님 : 원형은 마음이라 할 수 있겠는데.
- 2017년 5월 5일 오후 9:10, 시은 : 네
- 2017년 5월 5일 오후 9:10, 노명환 교수님 : 오늘이 어린이 날이니 이러한 예.
- 2017년 5월 5일 오후 9:10, 노명환 교수님 :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 말하면
- 2017년 5월 5일 오후 9:11, 노명환 교수님 : 아이가 신경질을 내면서 싫어 싫어 내 마음이야!
- 2017년 5월 5일 오후 9:11, 노명환 교수님 : 한다면 그 때 마음.
- 2017년 5월 5일 오후 9:11, 이은영 : 지금 에버랜드에서 귀가중이라 집에 도착해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 2017년 5월 5일 오후 9:12, 노명환 교수님 :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그림을 그려서 또는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 2017년 5월 5일 오후 9:13, 노명환 교수님 :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정치 권력의 힘이나 어떤 것에 의하여 오랜 세월 계승되면 집단 상징으로 자리잡겠습니다.
- 2017년 5월 5일 오후 9:13, 에나 SKY맘 : 네.
- 2017년 5월 5일 오후 9:13, 권현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14, 노명환 교수님 : 이러한 상징의 원리는 우리가 기록을 수집, 정리 기술, 평가 선별하여 기록문화유산을 만드는 것, 큐레이션해서 전시 또는 어떤 형태의 활용 등에서도 은

2017년 5월 5일 오후 9:15, 노명환 교수님 : 상징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집단 기억 집단 정체성 등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지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15, 송명배 선생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15, 안희선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16, 노명환 교수님 : 아까 상징이 정치 권력에 의해 만들어 진다 했는데, 공동체의 상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의 것인지, 밑으로부터 위로의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9:17, 회원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17, 노명환 교수님 : 우리는 마음을 표현하여 시각적 효과를 내고 (디자인을 만들고), 또는 우리 기록인처럼 기록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19, 권현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20, 노명환 교수님 : 상징이 공동체의 것이 되었었을 때, 그것은 그 공동체에 의해 학습되고 (교과서로 만들어서), 여러 행사에서 활용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상징에 대해 특별히 반응하게 되고 이것은 세대를 통해 이어지잖아요. 이것은 미국의 국립기록청 독립선언서가 그러한 것 처럼.

2017년 5월 5일 오후 9:21, 노명환 교수님 : 이러한 측면이 우리가 상징을 공부하며 기록의 본질, 사회적 역할 등을 공부할 필요성이예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21, 회원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21, 염지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21, 송명배 선생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21, 노명환 교수님 : 어떻게 동의 하나요? 의견 주십시오. 질문도 좋습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9:21, 최윤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22, sunlight_YH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22, 안희선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22, 노명환 교수님 : 최선생, 미안해요. 아이와 있어야 할텐데. 혹 잠을 자는지? 그러면 다행.

2017년 5월 5일 오후 9:23, 최윤하 : 괜찮습니다 교수님*^^

2017년 5월 5일 오후 9:24, 노명환 교수님 : 상징이 만들어 지는 원리, 상징이 표현해 주는 것, 원형 즉 우리의 마음, 이것을 기록의 본질과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만드는 것과 연결하여 이해하기로 해요. 그러면 아카이브 큐레이션 이해도 쉬워져요. 다 같은 원리에서.

2017년 5월 5일 오후 9:26, 노명환 교수님 : 이 정도 하고. 이 책에서 문화 원형으로서의 상징 들에 대해 앞으로 보기로 해요. 이 상징들은 다른 디자인에서 많이 원형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그림 등으로 표현되어, 상징을 통한 의사소통은 많은 상상력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2017년 5월 5일 오후 9:26, 노명환 교수님 :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 이해되고 동의하면 네라 하고, 아니면 질문 주세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26, 회원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26, 염지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26, sunlight_YH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26, 소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26, 권현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27, 안희선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27, 송명배 선생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27, 에나 SKY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27, 정남혁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27, 김태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28, 시은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29, 노명환 교수님 : 고마워요. 그래서 15페이지 이집트의 영혼의 새를 보아요. 아마 자유롭게 비상하는 균형잡힌 것을 상징하는 원형일까요? 이것은 대대로 이집트인에게 자리잡습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9:30, 노명환 교수님 : 우리에게 조선왕조실록은 기록 자체이기도 하지 만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의 상징이 되어 있지요? 그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 에게 공통되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우리의 개별성에 의해 각자 풍부하게 의미가 만들어지 기 도 하고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31, 노명환 교수님 : 우리 마음의 밝은 면을 상징하는 것, 어두운 것, 욕망16페이지에는 어두운 면, 그림자 상징이 있네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31, 회원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32, 노명환 교수님 : 상징과 기록

2017년 5월 5일 오후 9:32, 노명환 교수님 : 커뮤니케이션

2017년 5월 5일 오후 9:34, 노명환 교수님 : 여기에 기록의 관리 (문화유산 형성), 기록의 활 용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자 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자인 아카이빙이 중요하고 큐레이션과 활용이 중요하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상징을 통해 기록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보기 바라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34, 송명배 선생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34, 회원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34, 시은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34, 안희선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35, 노명환 교수님 : 여러분 나의 이 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하면 네. 아니면 커멘트 또는 질문 주세요. 소통을 위한 것이니 편하게 응해 주시고.

2017년 5월 5일 오후 9:35, 송명배 선생님 : 네 동의합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9:35, 안희선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35, 회원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35, 염지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35, 에나 SKY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35, 권현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35, sunlight_YH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35, 소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36, 노명환 교수님 :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지 강요하는 것 아니

니 내 요구를 상징적으로 받아주어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36, 노명환 교수님 :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을 잘 활용하기로 하고. 다음에 도 책 설명 할게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36, 정남혁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36, 시은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37, 송명배 선생님 : 어제 홍재웅 교수님이

2017년 5월 5일 오후 9:37, 노명환 교수님 :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 논문 335페이지 가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37, 송명배 선생님 : 아카이브는 경험을 기록하지 않는다. 거의 부재라고 할 정도다...

2017년 5월 5일 오후 9:37, 노명환 교수님 : 송선생 질문

2017년 5월 5일 오후 9:37, 송명배 선생님 :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상징의 의미를

2017년 5월 5일 오후 9:37, 송명배 선생님 : 아키비스트들이 갖는 것이 이에 대한 답이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9:37, 송명배 선생님 : 기록이 경험을 담지 못한다는 것은 상징의 의미를 해석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니깐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38, 노명환 교수님 :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선 경험을 아카이빙 하고, 그런데 그것이 상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39, 노명환 교수님 : 이런 훈련이 되면 예술.대중문화 아카이브 활발하게 할 수 있지요. 송선생 커멘트 고맙습니다. 이 문제 앞으로 논의해가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39, 송명배 선생님 : 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9:39, 노명환 교수님 : 이제 우리는 기억에 대해 이야기 하기로 해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40, 노명환 교수님 : 기억이란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의식에 의해 상징화 되는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40, 송명배 선생님 : 동의합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9:41, 최윤하 : 동의합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9:41, 염지수 : 네 동의합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9:41, 안희선 : 동의합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9:41, 노명환 교수님 : 다른 분들도 네 혹은 케멘트, 질문으로 소통하기로 해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41, 정남혁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41, 회원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41, 소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41, sunlight_YH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41, 예나 SKY맘 : 아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42, 권현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42, 노명환 교수님 : 이것이 수업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동안 수업의 결과 많은 이 측면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해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43, 노명환 교수님 : 기억이란 과정의 정확한 것,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했잖아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44, 노명환 교수님 : 그렇다고 객관적인 것이 아닌 것 아니고. 실제의

사건,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44, 회원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45, 권현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45, 안희선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45, 최윤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45, 노명환 교수님 : 그 사건과 우리의 마음 (원형)의 상호 작용이예요. 그래서 기억은 과거의 경험이 상징화 된 것이라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원리고, 사회의 원리인지 모르겠어요. 칼 융은 이점에 착안했어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45, 송명배 선생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46, 김태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46, 정남혁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47, 노명환 교수님 : 355페이지에 증거, 정보, 지식, 문화, 기억, 정체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을 상징의 원리 속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동의하면 네 아니면 질문, 커멘트 주세요. 나의 이 요구 상호 소통을 위한 것.

2017년 5월 5일 오후 9:48, 회원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48, 안희선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48, 송명배 선생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48, 정남혁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48, sunlight_YH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49, 소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49, 노명환 교수님 : 예. 우리는 창의적인, 4차 산업혁명시기의 성공적인 아키비스트가 될 자질을 잘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9:49, 최윤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50, 권현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52, 노명환 교수님 :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는데, 언제까지가 현재 의식이고, 언제부터 과거 그리고 기억이 되는가? 하는 설명을 프로이트를 들어 했어요. 336페이지에 보면 무의식, 억눌린 의식, 이것이 타자화, 성찰의 대상으로서 기억이 되고, 성찰의 결과로서 기억으로 불러오고, 성찰은 현재의 의식이 하고요. 상징적 원리.

2017년 5월 5일 오후 9:53, 노명환 교수님 : 현재의 의식과 과거화된 대상 (이전의 현재 의식), 성찰, 상징화, 이것이 기억이 만들어 지는 과정.

2017년 5월 5일 오후 9:54, 노명환 교수님 : 우리의 구술기록 생산, 일반기록관리 모두 이러한 과정과 원리에 잇는 것이지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55, 노명환 교수님 :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읽고 정보와 지식의 관계, 기억과 문화, 정체성 모두 인간의 본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할 수 있네요. 인간의 의식 과정, 의식 구조.

2017년 5월 5일 오후 9:56, 노명환 교수님 : 요 부분을 더 잘 읽어주어요. 다음에 또 설명. 앞으로 실무에 매진하면서도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중심으로 하는 점들을 끊임없이 사유하기 바래요. 이런 상징 책들도 읽고.

2017년 5월 5일 오후 9:56, 최윤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56, 정남혁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56, 회원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56, 안희선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56, 송명배 선생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56, sunlight_YH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56, 염지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57, 노명환 교수님 : 우리에게서 태극기가 특별하잖아요. 그런데 독일 사람에게? 상징은 만들어지고 계승되고 문화가 되어 우리 의식 구조를 형성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주지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57, 노명환 교수님 : 우리가 만드는 기록문화유산이 또 그럴 것이지요.

2017년 5월 5일 오후 9:58, 노명환 교수님 : <처음 읽는 서양철학사>> 책에서 417 밑에서 둘째 줄 ~ 418까지 푸코의 <<광기의 역사>>에 대해 읽음

2017년 5월 5일 오후 9:59, 회원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59, 소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9:59, 노명환 교수님 : 에피스테메는 그 시대의 상징체계를 통해 읽을 수 있고. 에피스테메와 상징체계는 어찌보면 같은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처럼 답 요구.

2017년 5월 5일 오후 10:00, 송명배 선생님 : 네 동의합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0, 염지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0, 회원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0, 시은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0, 안희선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0, sunlight_YH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0, 정남혁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1, 소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1, 에나 SKY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2, 권현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2, 노명환 교수님 : 자 그러면, 광기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징체계, 또는 에피스테메에 따라 본질이 규명되고,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에피스테메, 상징체계가 중요하네요.

2017년 5월 5일 오후 10:03, 회원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3, 권현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3, 송명배 선생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3, 노명환 교수님 : 기록은 그 자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에피스테메, 상징체계에 따라 그 본질과 가치가 달리 규명되고,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네요.

2017년 5월 5일 오후 10:03, 송명배 선생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3, 최윤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3, 회원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4, 시은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4, 정남혁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4, 권현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4, 노명환 교수님 :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상징 체계를 기호 체계

라는 개념과 연계해서 이해해 보기로 해요.

2017년 5월 5일 오후 10:05, 노명환 교수님 : 우리 수업을 9시 반까지 해도 될까요?

2017년 5월 5일 오후 10:05, 회원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5, 회원님 : 괜찮습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5, 안희선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6, 송명배 선생님 : 네 괜찮습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6, 노명환 교수님 : 사정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보기로 해요.

2017년 5월 5일 오후 10:06, 예나 SKY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6, 시은 : 네 괜찮습니다 교수님

2017년 5월 5일 오후 10:06, 권현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6, 최윤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6, 소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7, 염지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09, 노명환 교수님 : 기호도 상징과 같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현대적 의사소통의 이론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호학이 상징학보다 많은 이론 체계를 갖고 있고 현대사회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원은 상징원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는 같은 것이기도 하고 차이가 있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는 기호 상징 체계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터 플랫폼 시대에 기호 상징 체계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데이터들의 상호 작용, 빅데이터 분석. 이 지점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10:10, 최윤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10, 시은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11, 권현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11, sunlight_YH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11, 노명환 교수님 : 내가 기록학에 기호학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이 기호 상징 체계를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원리, 사회의 원리 속에서 기록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 원리를 이해하는 가운데 관리되는 기록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10:11, 회원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13, 노명환 교수님 : 430페이지 에피스테메와 고고학적 방법 이해할 수 있자요? 시대에 따라 에피스테메가 다른 것. 시대에 따라 상징 원리가 다른.

2017년 5월 5일 오후 10:13, 노명환 교수님 : 바로 이런 상황에서 푸코같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기호학을 중시한 것입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10:14, 최윤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14, 송명배 선생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14, 안희선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14, 회원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14, 소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15, 권현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15, 정남혁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15, 시은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15, 노명환 교수님 : 그 옆페이지 감시와 처벌 볼까요?422 페이지

가장 무서운 감시도구는 기록이라지요. 항상 그런가요. 그 시대의 체계, 가치, 상징체계에 의해 기록은 민주주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감시의 수단이 되기도 하겠어요.

2017년 5월 5일 오후 10:16, 노명환 교수님 : 424페이지 이 시대의 에피스테메는 무엇일까 읽어보고 생각해 봐요. 우리 수업에서도 토론했어요.

2017년 5월 5일 오후 10:17, 노명환 교수님 : 에피스테메 개념을 다룬 그의 책 <<말과 사물>> 기억해주고.

2017년 5월 5일 오후 10:17, 노명환 교수님 :

"구성주의 이론 시각에서 본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논문에서

338~341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에 대해 읽음

2017년 5월 5일 오후 10:18, 노명환 교수님 :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와 푸코의 에피스테메를 비교해 봐요. 부르디외는 원래 상류층과 중하층 사회 계급

2017년 5월 5일 오후 10:20, 노명환 교수님 : 에 따라 의식 구조가 다르고 그것이 반영된다는 의미에서 이 의식구조와 그것이 일상에서 실현되는 문화의 형태를 아비투스 (습관)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후대에 각 시대별의 의식 구조에 적용하기도 하요. 그경우 아비투스와 에피스테메는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겠어요.

2017년 5월 5일 오후 10:21, 노명환 교수님 : 기호학 및 '성리학적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한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논문에서 154~170 읽어줌

2017년 5월 5일 오후 10:24, 노명환 교수님 : 자 그러면 이 정도의 학습 배경에서 기호학과 기록 및 기록관리를 연계해서 볼까요?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학을 이해 해주고. 무엇보다도 이 논문의 머리말을 자세히 읽어주어요. 상징, 기호 기록을 연계해서 공부하고 사유합니다. 이를 차후 구성주의 이론, 특히 성리학적 구성주의 이론과 함께 공부합니다. 이 지점이 4차 산업 혁명의 홀론, 프랙탈, 카오스와 코스모스 이해하는데도 대단히 도움됨. 오픈 아카이브의 역할과 연계 설명. (추후 설명함)

2017년 5월 5일 오후 10:24, KMJ :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외부에 있으라 참석이 늦었습니다

지난 카톡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10:24, 노명환 교수님 :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의 관점에서 보는 조선시대 성리학.... 논문에서

237~239 중간까지 읽음

2017년 5월 5일 오후 10:25, 노명환 교수님 : 개념적 구성물 개념을 지금까지의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겠지요. 위의 논문 페이지 다시 읽어주고.

2017년 5월 5일 오후 10:25, 회원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26, 안희선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26, 정남혁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26, 최윤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26, sunlight_YH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26, 송명배 선생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26, 예나 SKY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26, 시은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26, 소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27, 권현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28, 노명환 교수님 : 상징의 원리, 생성과정, 기호 상징 체계를 공론장을 통해, 의사소통행위 이론을 통해, 특히 화용론 (의사소통과 맥락. 메타데이터를 위해 중요. 나중에 설명) 공유하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나중에 하버마스 더 공부해요.

2017년 5월 5일 오후 10:28, 노명환 교수님 : 7) "구성주의 이론 시각에서 본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논문에서
319페이지 도표 이해.

2017년 5월 5일 오후 10:28, 최윤하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28, 권현진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29, 시은 : 네

2017년 5월 5일 오후 10:30, 노명환 교수님 : 풍존중의 원칙에서 출처주의, 원질서원칙, 네덜란드의 아키비스트들 위의 이론들에 의거한 실용적 메뉴얼 집필, 젠킨슨 미국으로 (엄격한 출처주의)

2017년 5월 5일 오후 10:31, 노명환 교수님 : 독일의 아돌프 브레네케 , 언스트 포스너 통해 미국으로 (셸른버그로) 자유출처주의. 포스너가 중요한 인물. 나중에 다시 설명. 이후 한스 봄스 의 등장.

2017년 5월 5일 오후 10:32, 노명환 교수님 : 상징체계, 기호학 관점에서, 개념적 구성의 관점에서 나중에 기록학 (기록관리 실무)의 역사를 설명할게요. 오늘은 여기 까지 해요.

2017년 5월 5일 오후 10:33, 회원님 : 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10:33, 안희선 : 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10:33, 송명배 선생님 :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2017년 5월 5일 오후 10:33, 정남혁 :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10:33, sunlight_YH : 네 감사합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

2017년 5월 5일 오후 10:33, 예나 SKY맘 : 내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10:33, 염지수 :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10:33, 최윤하 :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

2017년 5월 5일 오후 10:33, 김태현 : 네~ 남은 연휴 잘보내세요!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10:33, 소현 : 감사합니다 교수님~~

2017년 5월 5일 오후 10:33, 시은 :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口

2017년 5월 5일 오후 10:34, 노명환 교수님 : 다음 주도 콜로키움으로 수업을 못하는데 우리 수업이 맥이 끊기지 않도록 오늘 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읽고 사유하고, 살아 있는 인격체로서 실무를 멋지게 해요.

2017년 5월 5일 오후 10:34, 권현진 :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2017년 5월 5일 오후 10:35, 권현진 :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

2017년 5월 5일 오후 10:35, 회원님 : 네^^(굿)

2017년 5월 5일 오후 10:36, 정남혁 :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10:39, 노명환 교수님 :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2017년 5월 5일 오후 10:42, 권현진 : 교수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